

**2020 제 30차 한국통역번역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언택트 시대의 통번역

일시: 2020년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 소:

<https://zoom.us/j/96199222608?pwd=TIkzUHhzcFE2YmRXeXIDVnZsRHBYdz09>

2020 제30차 한국통역번역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언택트 시대의 통번역

일 시: 2020년 10월 24일(토)

장 소: 줌 링크 접속 <https://zoom.us/j/96199222608?pwd=TIkzUHhzcFE2YmRXeXIDVnZsRHBZdz09>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이혜승 회장 (수원대)		
14:10-14:20	시상식	2020 한국통역번역학회 우수 논문상 시상식 ● 최우수 논문상: 박현주 (이화여대) ● 우수 논문상: 박현일 (사이버 한국외대)		
1세션 14:20-16:00	좌장	발표	이용성 부장 (조선Biz 국제부)	언론과 국제업무 현장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시대 통번역의 도전과 기회
	정호정 (한국외대)		이지민 (계명대)	언택트 시대의 네티즌 번역 전략
	토론	김아영(부산외대), 박지영(서울외대)		
2세션 16:00-17:30	좌장 임향옥 (한국외대)	발표	임세인 (한국외대)	포스트휴먼 시대의 통역사 교육: 테크네인문학적 접근 가능성에 관한 고찰
			김동미 (우송대)	문화번역에 대한 인공지능(AI)과 인간의 등가성 구현 비 교에 대한 재고: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신혜인 (이화여대)	한영순차통역수업의 교수법 —샤론최 통역 사례 연구 중심으로.
	토론	이주연(한국외대), 김영주(덕성여대), 홍정민(동국대)		
3세션 17:30-18:30	좌장 김순영 (동국대)	발표	최경희 (평택대)	수행기억과 순차통역 시 노트테이킹 언어
			박건영, 남희지, 임소연 (한국외대)	영화 <기생충> 자막의 문화소 번역 연구
	토론	최은아(한국외대), 조재범(경희대)		
18:30-18:40	폐 회			

※ 프로그램상의 발표, 시간 및 순서는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역번역학회 논문상

최우수 논문상: 박현주 (이화여대)

"번역사의 전문용어 능력 향상을 위한
유럽의 제도적 노력 고찰"
통역과 번역 21(1)

우수 논문상: 박현일 (사이버 한국외대)

"전문 통번역사의 통역품질 평가 연구"
통역과 번역 21(2)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 10월 24일

한국통역번역학회

Korean Society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Ksci

언론과 국제업무 현장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시대 통번역의 도전과 기회



이용성

조선비즈 국제부장

Introduction

현대-기아차 공채3기(기아차 해외마케팅 부서 근무)

코리아타임스 문화부, 사회부 기자

코리아헤럴드 문화부, 경제부 기자

한국 화웨이 PR 부장

국제영어대학원대학(IGSE) 초빙교수

현) 조선비즈 국제부장

통번역 관련: 포스코신문 글로벌면, 서울시 관광홈페이지, 웨스틴조선 100주년 책자 영문판, 아모레 퍼시픽 헤라매거진 등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들



MEDIA ADVISORY

Join the first instalment of our monthly digital event series - CAPA Live

14-Oct-2020 | Virtual

WHO: CAPA - Centre for Aviation (CAPA)

WHAT: CAPA Live

At a time when the aviation industry is searching for up-to-the-minute market intelligence, news, trend analysis and thought leadership, CAPA - Centre for Aviation will deliver a monthly virtual "Summit", jam-packed with information, data and live interviews. CAPA experts, global airline CEOs and other cutting-edge industry leaders will be presenting live from a next-gen virtual event platform. See [here](#) for the full October agenda.

WHEN: Wednesday, 14-Oct-2020

WHERE: Virtual

PASSES: Complimentary passes are available for media attendees - register* via the form linked below.

REGISTER FOR A COMPLIMENTARY MEDIA PASS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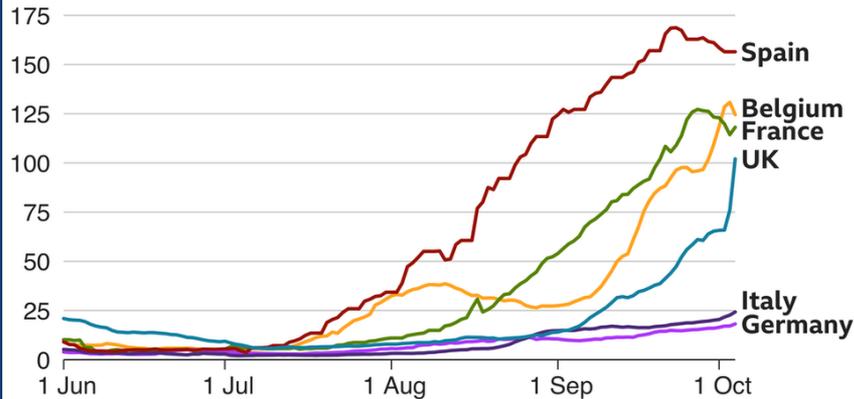
SPEAKER HIGHLIGHTS INCLUDE:

- Emirates, President, Sir Tim Clark
- American Airlines, Chairman & CEO, Doug Parker
- World Bank, President, David Malpass

Covid-19 팬데믹, 얼마나 오래갈까?

Coronavirus cases increasing in European countries in recent weeks

Total cases per 100,000 people by week up to 04 Octo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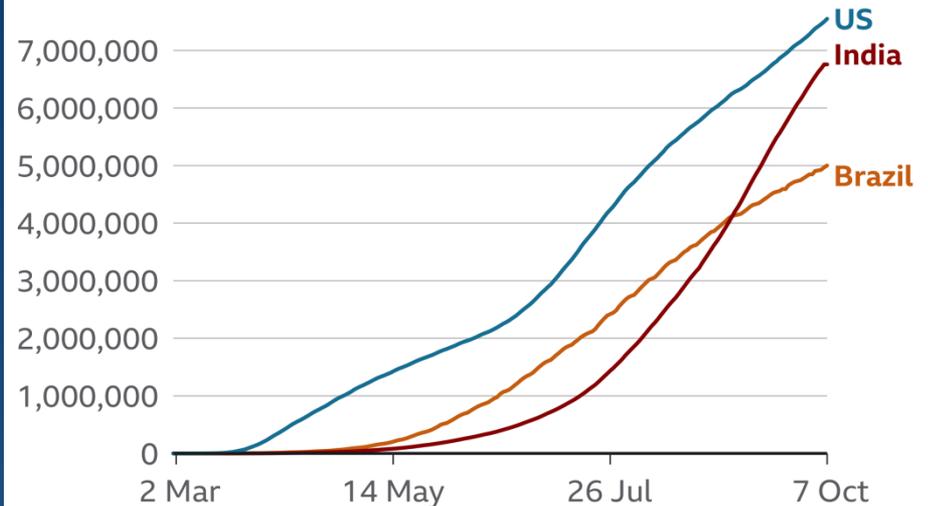
Note: Countries do not always release figures every day, which may explain some of the sharp changes in the trendlines

Source: ECDC, data to 4 Oct

BBC

Brazil has third-highest number of cases

Total number of officially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Source: Johns Hopkins University, data to 7 October

BBC

1. 백신 출시와 상용화가 오래 걸릴수록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
2. 최근 미국과 유럽, 중남미 인도 등의 확산세는 가라앉지 않고 있음. '코로나 종식' 선언했던 중국도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
3.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휴대폰 액정과 지폐 등에서 한 달 가까이 생존 한다는 연구결과(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독감 바이러스는 비슷한 조건에서 17일 생존

포스트 팬데믹 시대, 얼마나 달라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이미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의 지렛대로 삼고 있음



트위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원하는 직원은 무기한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고, 페이스북은 향후 5~10년간 직원 중 절반을 재택근무

국내 재택근무 운영 중인 기업은 48.8%에 달함(고용노동부, 8월 기업 인사 담당자 400명 조사 결과)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전체 직원의 40%는 재택으로ppt.com

(아직은) 엇갈리는 평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재택근무는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팀 쿡 애플 CEO: “대다수 직원이 사무실을 떠났는데도 새로운 애플워치와 아이패드를 만들어냈다. 직원들의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JP모건: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전 직원 재택근무 방침을 철회 일부 고위직 복귀

(아직은) 엇갈리는 평가



국내의 경우: 10명 중 9명이 '만족' (8월 고용노동부 조사)
'대체로 만족'이 60.5%, '매우 만족'이 30.8%.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86.0%)가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이점. 재택근무로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73.9%. 가장 큰 걸림돌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 모호'와 '업무공간 미분리로 인한 효율 저하'.

야후는 2014년부터 직원들의 원격근무를 금지. 복도와 구내식당에서의 즉흥적인 만남에서 최선의 결정과 통찰력이 나온다는 판단. 한때 직원 38만여명 가운데 40%가 사무실 밖에서 일했던 IBM도 2017년부터 모든 직원에게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했음.

변수는 기술과 인식변화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Zoom과 구글미트 등 비대면 소통 플랫폼에 다양한 Interactive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



비대면 문화와 인식의 변화 (언론의 예)

ChosunBiz 10 YEARS

산업 부동산 증권 테크 금융 정책 시사 국제 오마-인 파워

정책 [2020 세계경제 전망]④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韓 경기하락 불가피...규제완화 시급"

조선비즈 | 이윤성 기자취재

입력 2019.12.30 07:00

韓 어떤 노력을 해도 경기하락 피하기는 어려운 것
전세계적인 부채증가 "직접할 만한 상황"
무.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앞서-급 여력 커

"미국인 한지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드물다. 무엇보다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무채를 늘리기만 할 것만 같다. 그렇게 재선이 되면 미국과 경제가 나빠지고 그 책임을 외국에 돌리면서 무역전쟁만 더 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의 함께 세계 최대 투자 회사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에게 2주일 전 있었던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을 물었다. 얼마 후 "연년 하도" 공황에 빠지는 초월적 투자 기회라고 전하니 "전혀 몰라"는 답이 왔다.



정책 주요뉴스

- 국가채무 800조원 돌파는 내달 재정적자 사상 최대 96조원
- 韓 재정예산지 비용 OECD 최고 수준...전기요금 인상 필요
- 시가 기준으로 대우주 주시영 부회, 한미아 위임
- 핀란드 국채부 평가 건부 60%, 양자 산하기관 재검토
- 조정부 서울 유주투자자 자산 재차 커졌다
- 말미 본 뉴스

- 1 세계 열대야 스페르본야
- 2 한겨레 수산사태-한대 G
- 3 대통령직 코르나19 사태
- 4 "말미워이기 시판만큼 중요"
- 5 "구조적 개혁이 안되면", 박
- 6 韓 구해와 자력 교고 도산
- 7 말미워 기는 공공주택 등
- 8 행정수도 이전하는 안도
- 9 콘월간 코르나, 화제론 역
- 10 전세 이어 말미워 금융...

말미워로 소문난 로저스 회장은 연단 분위기가 환한인 주위(현지 시각 토요일 오후 2시에)에 고향 호텔에서 혼자 말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올해 일흔두 살인 로저스 회장은 17세, 12세인 두 남동아 딸을 두고 있다.

공공주택 말미워 짓고 말미워 말미워 속력 줄었다. 아니니 다들, 연안에 있는 보딩스들에 제작 중인 말미워 연니라 있다고 했다. 말미워를 맞은 두 말미워 아들이 함께 온 채우로 여행을 마실 계획이란다. 그는 40분 가까이 이러한 연하 연하를 통해 미국 내산과 중국 경제, 북미사태와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제에 100%를 쏟아냈다.

로저스 회장은 재도에서 역사적으 전공하고 말미워 옥스퍼드대 대학원생시와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1969년 스물일곱 나이에 예저리드 재도 조지 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투자사인 로저스홀딩스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1980년대

[interview]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트럼프, 대만 총통과 통화로 중국 외교 어려워 질 듯 美 보호무역 기조에도 한·중·일 협력 강화 쉽지 않아”

179호 2016년 12월 12일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트럼프 당선 만으로 가까워질 만큼 한국과 중국·일본 세 나라의 상호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2일(현지 시각)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10분간 통화했

[인터뷰] "압도적인 데이터 경쟁력으로 또 다른 팬데믹 막을 것"

이용성 국제부장



입력 2020.10.05 06:00

AI 접목으로 의료 인력 부족 해결 노력
세계적인 의료기관과 유튜브 제작 협력
검색 기능 연동해 '긴급 알림' 기능 제공

지난 7월말 기준 전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은 92%가 넘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쟁이 없다. 2위 Bing과 3위 야후의 점유율은 각각 2.4%, 1.6%대에 불과하다.



비대면 문화와 인식의 변화 (언론의 예)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에이드리언 첵 홍콩 뉴월드부동산그룹 부회장(상속자)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아베노믹스 이론적 지지)
댄 니어리 페이스북 아·태 지역 총괄 부사장
레나토 네토 유럽 비즈니스기구 세계 네트워크 회장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 교수
크리스 롤리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마이클 페티스 중국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 교수
바트 슐츠 유네스코-IHE 교수
다니엘 폴리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해양생태 전문가)
세스 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항공연구센터장
존 플래너리 GE 헬스케어 사장(현 GE 회장)
지안프랑코 로띠(럭셔리 브랜드 지안프랑코 로띠 창업자)
헤르만 지몬 지몬-쿠허&파트너스 회장
캐런 M 골즈 언스트앤영 부회장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원장
TJ 펴펠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장
리처드 레빅 레빅 전략커뮤니케이션 회장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교수
바바라 캘러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안니 라히알라 스타트업 사우나 CEO
소렌 넬슨 윌리엄 디만트 그룹 회장
앤드루 스캇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
윌리엄 쓰쓰이 미국 헨드릭스 칼리지 총장
에릭 요나트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 사무총장
벤 괴르첼 싱글래티티넷 창업자 (로봇 소피아 공동 개발자)

리카이푸 시노베이션벤처스 회장(중국 스타트업 대부)
샤오둔(중국 최대 온라인 교육회사 '이치취예망' 창업자)
알렉스 스타모스 페이스북 최고보안책임자(CSO)
상빙 장강경영대학원(GKGSB) 총장
스튜어트 러셀 미국 UC 버클리 교수(인공지능 전문가)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
마틴 아이헨바움 미국 노스웨스턴대 국제경제연구소장
러셀 와이너 미국 뉴욕대 스톤경영대학원 교수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
존 벤스빈 미국 에어라인비전 대표
악셀 드레허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교수
제이 사이몬스 아틀라시안 CEO
폴 로디시나 AT커니 명예회장
군트람 볼트 브뤼겔 연구소장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소장
비투스 쿠야우키소 그린란드 산업통상외교장관
클레멘스 푸에스토 독일 ifo 소장
오스만 키바르 사무메드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블라이루 마기 브라질 농업부 장관
슬라보 라도세비치 영국 런던대(UCL) 교수
테드 린 중국 컨설팅 회사 BCC 최고경영자
월 로스 라자다 크로스보더 CEO
로버트 실버스 전 미국 토안보부 사이버정책 담당 차관보
팀 컬킨스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경영대학원 교수
마이클 그린스톤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EPIC) 소장

신종바이러스 ‘뉴노멀 시대’통번역의 명과 암

‘기회’ 측면

웨비나와 화상 인터뷰 증가-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그걸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이 중요

*비대면 기술의 발달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



UNWTO Webinars

THE REGIONAL DEPARTMENT FOR AFRICA PRESENTS:

LANGUAGE: ENGLISH

UNWTO Webinar: The impact of COVID-19 on Tourism Trying to make sense of so much or so little data - African Insights -

(WEBINAR, THURSDAY 30 APRIL 2020 FROM 14.00 - 15.30 GMT+2)

YOUR HOSTS

- 
Elcia Grandcourt
Regional Director for Africa, UNWTO
- 
Sandra Carvao
Chief, Tourism Market Intelligence and Competitiveness, UNWTO

OUR EXPE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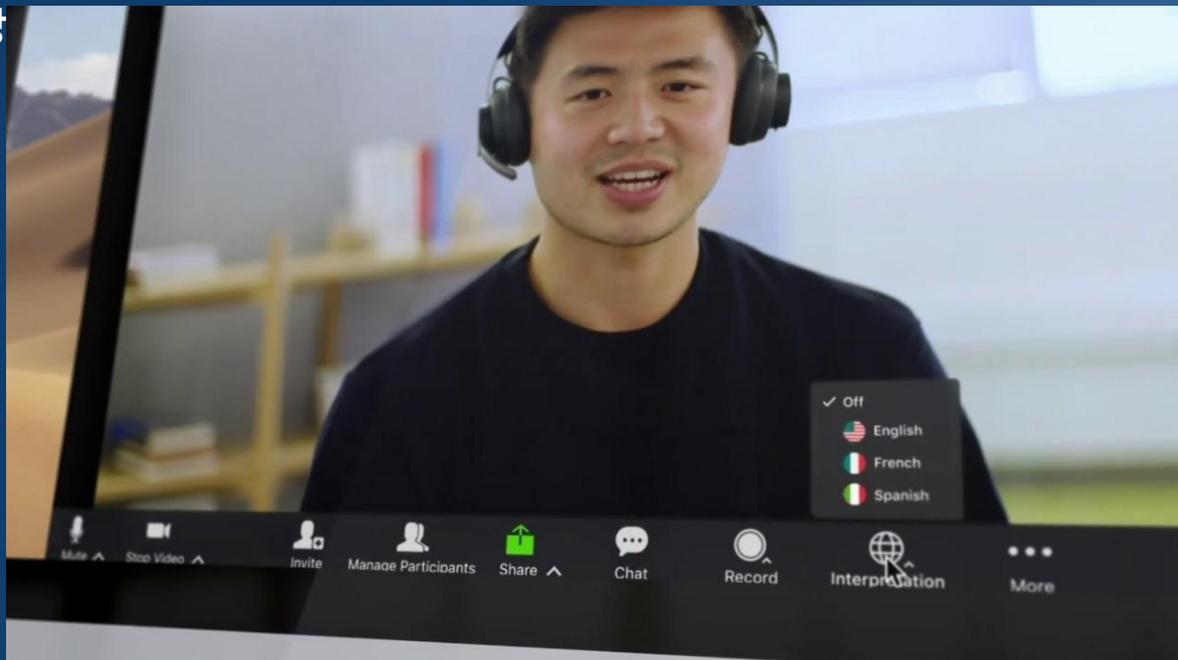
- 
Olivier Ponti
Vice President – Insights, ForwardKeys
- 
Sara Pastor
Managing Director, Destinations, EMEA, Adara
- 
Philip Wooller
Area Director, Middle East & Africa, STR
- 
Olivier Henry-Biabaud
CEO, TCI Research
- 
Carmen Nibigira
Destination Management & Tourism Policy Analyst B.A. (Hons), M.A., Ph.D.

신종바이러스 ‘뉴노멀 시대’통번역의 명과 암

‘기회’ 측면

Zoom의 경우 화상 플랫폼에 통역사가 참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적으로 더 정교해질 것으로 보임

-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nldGntmE7mQ>

신종바이러스 '뉴노멀 시대' 통번역의 명과 암

'도전' 측면

해외 이동에 제약이 커지고, 거리두기를 지켜 진행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져 오프라인 이벤트는 수요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탈국제화 기조 강화-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갈등 심화와 탈동조화는 불가피



신종바이러스 ‘뉴노멀 시대’통번역의 명과 암

‘도전’ 측면

화상을 통한 소통의 어려움-표정과 제스처 등 non-verbal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장시간 대화시 피로감도 더함)



"Body Language" provides a lot of information on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 if you know what to look for.

Stay Connected with

www.facebook.com/SmartSolutionsMangal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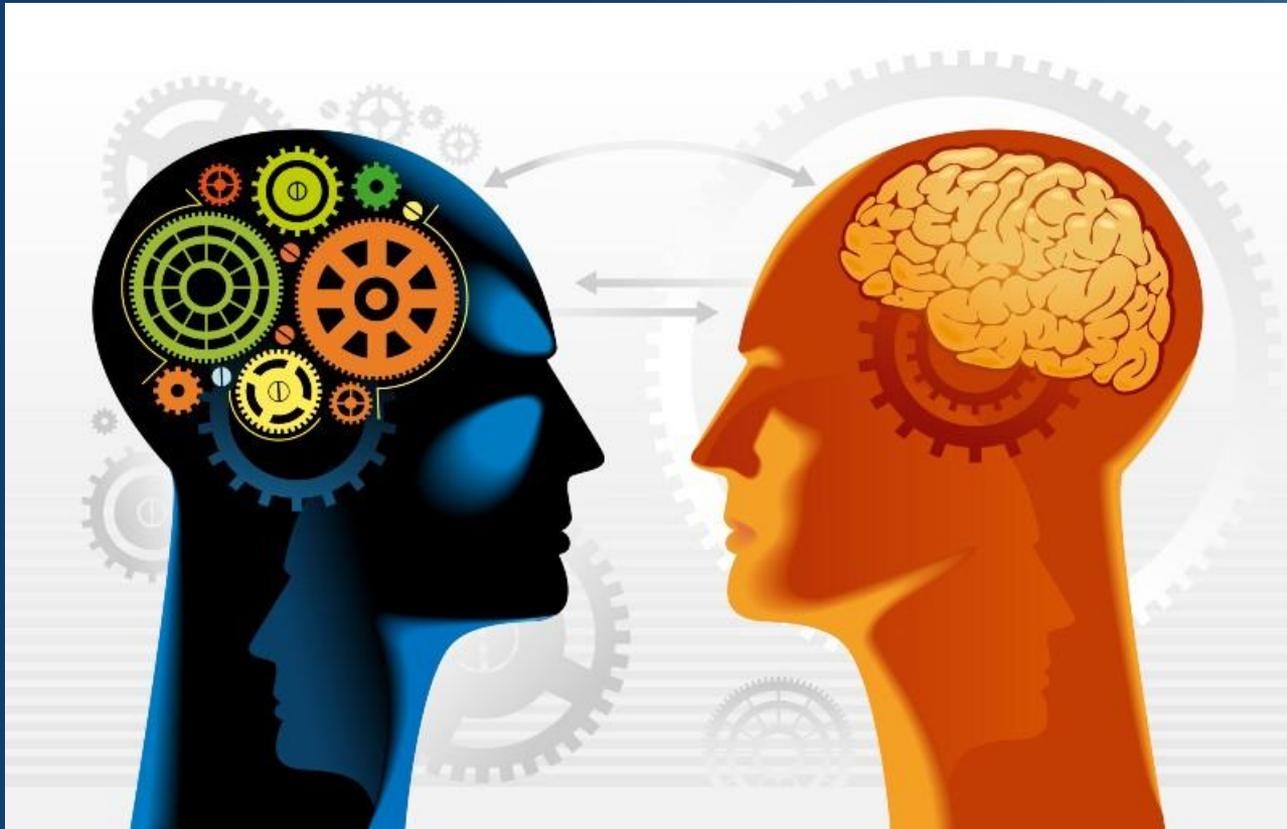
승패를 가를 유연성과 기술 적응력(결론)

기술 트렌드 변화를 놓치지 말 것!



승패를 가를 유연성과 기술 적응력(결론)

AI와 통번역-고급 통번역 영역에서는 한계가 분명



승패를 가를 유연성과 기술 적응력(결론)



넓은 분야의 뉴스 정보를 평소에 보는 습관이 도움 될 듯(깊이 보다는 넓이)

통번역 서비스의 전문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해 보임
(외국어 실력과 통번역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의외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깊이 보다는 넓이-소셜미디어 활용

1. Facebook

The image displays three screenshots of a Facebook mobile application interface, illustrating the user's experience with news and data visu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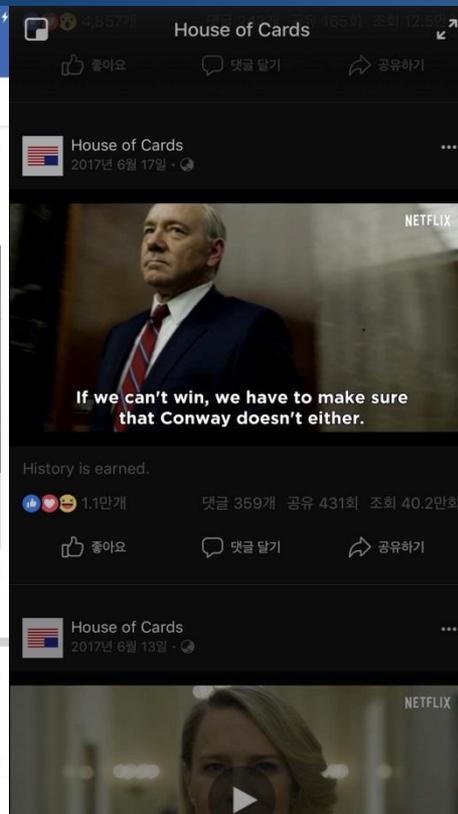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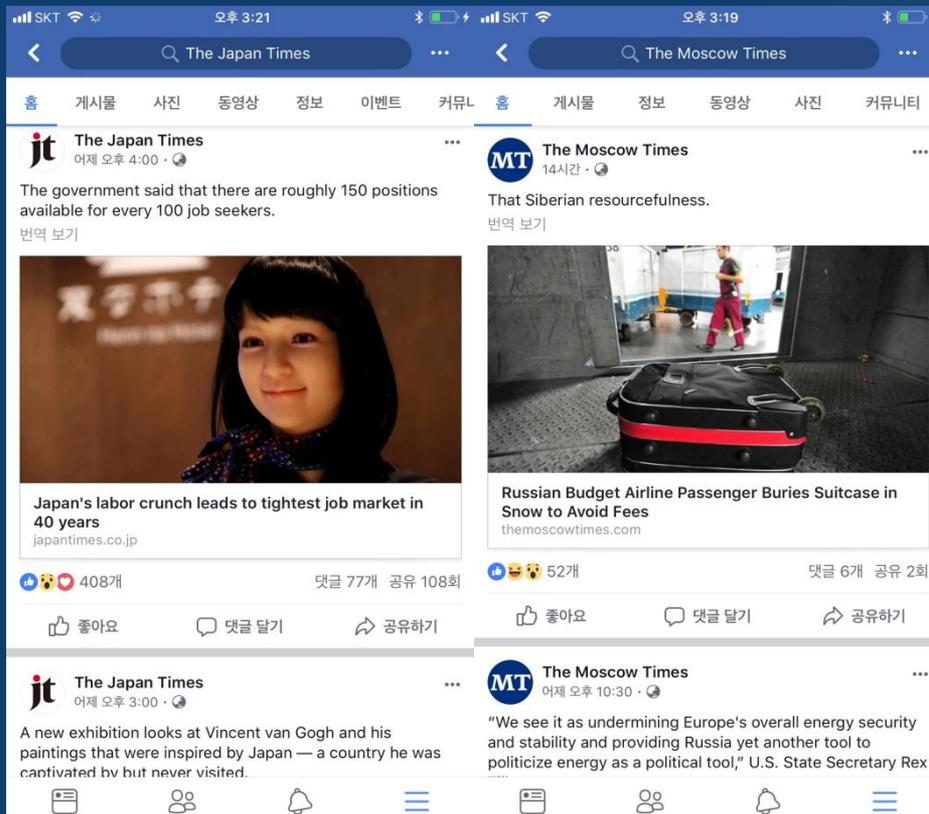
Left Screenshot (Time: 오후 3:05): Shows the Facebook home screen with a search bar, a profile picture, and a post from NBC News. The post text reads: "Mika Brzezinski of MSNBC's Morning Joe cut off an interview with Michael Wolff, the author of 'Fire and Fury,' after the two got into a heated exchange over a veiled suggestion by Wolff that U.N. Ambassador Nikki Haley was having an affair with President Trump. Moments later, Wolff shot back at Brzezinski http://... 더 보기 번역 보기". Below the text is a video player showing a news broadcast with the text "NYT: MUELLER ZEROES IN ON STORY PUT TOGETHER ABOUT TRUMP TOWER MEETING". At the bottom, there are interaction buttons for "좋아요" (Like), "댓글 달기" (Comment), and "공유하기" (Share).

Middle Screenshot (Time: 오후 3:15): Shows a post from McKinsey Quarterly. The text read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on the rise. Here's what executives need to know about AI's limitations—and the advances poised to address them. http://bit.ly/2n8vlxx 번역 보기". Below the text is a scatter plot titled "Future artificial intelligence (AI)-demand trajectory, % change in AI spending over next 3 years*". The x-axis is "Current AI adoption, % of companies?" (0-32) and the y-axis is "% change in AI spending over next 3 years*" (0-13). The plot shows various sectors: "Falling behind" (Build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Professional services", "Education", "Retail", "Consumer and packaged goods", "Healthcar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Media and entertainment", "Automotive and assembly", "Energy and resources", "Financial services", "High tech and communications", and "Leading sectors" (Automotive and assembly, Energy and resources, Financial services, High tech and communications). Below the chart is a legend for "Leading sectors" and "Falling behind".

Right Screenshot (Time: 오후 3:24): Shows a post from MIT Technology Review. The text reads: "People are starting to view cybersecurity as a business risk instead of an IT problem." Below the text is an image of a robot on a conveyor belt. Below the image is the text "TECHNOLOGYREVIEW.COM Insurance companies are struggling to make sense of cybersecurity risk". At the bottom, there are interaction buttons for "좋아요" (Like), "댓글 달기" (Comment), and "공유하기" (Share).

깊이 보다는 넓이-소셜미디어 활용

1. Facebook



깊이 보다는 넓이-소셜미디어 활용

2. Twitter

The image displays four screenshots from the Twitter mobile application, illustrating social media activity. The first screenshot shows a tweet from Elon Musk (@elonmusk) stating, "The rumor that I'm secretly creating a zombie apocalypse to generate demand for flamethrowers is completely false." This tweet has 103K retweets and 380K likes. Below it, a reply from Ian Miles Cheong (@stillgray) says, "You'd need millions of zombies for a so-called 'apocalypse' anyway. Where would I even get a factory big enough to make so many!?" The second screenshot shows a tweet from Tim Cook (@tim_cook) mentioning "Gorgeous #ShotoniPhone photos from around the world taken by lukeshadbolt in Niseko, Japan, @lzkiz in Cappadocia, Turkey and @sarakhnov in Myhove, Ukraine #iPhoneX". The third screenshot shows a tweet from Richard Branson (@richardbranson) promoting his autobiography "Finding My Virginity" with a link to virgin.com/richard-branson... and 3,846 retweets and 12,150,239 retweets. The fourth screenshot shows a tweet from Richard Branson (@richardb...) dated 2017. 10. 11. with the text "Never lose the thrill of trying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What's on your list to try? po.st/RichardBook #FindingMyVirginity".

Q&A

감사합니다 Natick
Danke Ευχαριστίες Dalu
Thank You Köszönöm
Tack
Спасибо Dank Gracias
谢谢 **Merci** Seé
ありがとう

Grazie

Obrigado



**언택트 시대의
네티즌 번역 동기 연구**

계명대학교

이지민

목차

1. 연구질문
2. 이론적 배경
3. 설문조사 설계
4. 분석 결과 논의
5. 의의 및 한계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

- 연구 질문: Korean TED Open Translation Project의 참여자들은 누구이며 왜 번역에 참여하는가?
- 연구 방법: 설문조사 수행 후 요인 분석을 통해 동기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관련된 타 연구와 비교 분석 실행

TED Open Translation Project란

- TED(<http://www.ted.com>)
 -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자
 - 미국의 비영리 단체
 - 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라는 모토 아래 세계적으로 연리는 강연회
 - 강연회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전 세계인이 시청
- TED Open Translation Project
 - TED 강연을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번역
 - 2009년에 시작. 2019년 7월 현재 전세계 총 34,123명의 번역자들이 148,587개의 동영상을 116개 언어로 번역해 공개.
- Korean TED Translators (2019년 8월 28일 현재)
1,772여 명의 영한 번역자가 활동 중

선행연구: 참여 동기

- **집합지성 참여 동기, 자원봉사 동기:** FOSS 프로젝트 참여자(Lakhani & Wolf, 2005; Ghosh, 2005), 자원봉사자(Nov, 2007; Rafaeli, 2009; Clary et al, 1998), 지식검색 서비스 참여자(최항섭, 2006), 위키백과/네이버지식iN 참여자 동기 연구(황주성·최서영, 2010)
- **집합지성 번역 참여 동기:** Fernandez Costales(2012), 위키피디아 번역자 연구(McDonough Dolmaya, 2012), Rosetta Foundation 번역자연구(O'Brien & Schäler, 2010), TED 번역자 연구(Olohan, 2014; Fuente, 2015)

설문조사 설계

영역	항목	설문방식
인구통계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 •직업 •TED 번역 경험 •영어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항목에 체크 또는 단답형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집합지성 동기 연구, • 자원봉사 동기 연구(VFI 포함), • 집합지성 번역 동기 연구 기반으로 한 23개 동기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1개 항목에 대해 동기 주관식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surveymonkey.com을 활용, 설문지 작성
- Facebook의 TED Korean Translators 그룹에 설문조사 링크 게재
- 2019년 7월 -8월, 2개월 간 설문 진행
- 총 103명의 유효응답자
- 설문 결과는 SPSS 프로그램 활용하여
 - 탐색적 요인 분석
 - 성별/직업군/연령에 따른 동기 차이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정의: 문항이나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방법이다.

•목적:

- 변수 축소
- 불필요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변수 제거
- 변수 특성 파악(요인 간에는 상호 독립적)

참여자 프로파일

• 성별

성별	응답자 수(%)
남성	41 (39.81)
여성	62 (60.19)
응답자 총수	103 (100.00)

• 연령

연령대(만나이)	응답자 수(%)
10대(15~19)	16 (15.53)
20대(20~29)	39 (37.86)
30대(30~39)	36 (34.95)
40대(40~49)	8 (7.77)
50대(50~59)	3 (2.91)
60대(60~69)	1 (0.97)
응답자 총수	103 (100)

- 번역자 남녀 비율이 40:60
- ted 방문자 비율은 63:38 (www.rankey.com)
→ 여성이 번역에 더 적극 참여

- 주번역자는 20대, 30대
- 주시청자는 40대 (www.rankey.com)
→ 20대, 30대가 번역에 더 적극적

참여자 프로파일

• 직업

직업	응답자 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통번역대학원생 제외)	23(22.33)
회사원(IT, 디자인 제외)	21(21.39)
통번역 전문가(통번역대학원생 포함)	18(17.48)
고등학생	15(14.56)
언어교육(교사, 교수, 강사)	11(10.68)
IT, 디자인	7(6.80)
무직	4(3.88)
비언어교육(교사, 교수, 강사)	2(1.94)
기타	2(1.94)
응답자 총수	103(100)

번역 참여 동기 (요인분석 결과)

동기 요인	설문 항목	동기종류	평균
나눔	좋은 취지의 내용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번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회적/내적	4.11
재미	지적인 도전이니까 자막 번역이 재미있어서 여가 생활 취미로	개인적/내적	3.95
학습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번역이 TED 지식 획득에 도움이 되니까	개인적/내적	3.58
경력	경력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자막 경험을 쌓고 싶어서 번역 경험을 쌓고 싶어서 내 번역에 대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고 싶어서	개인적/외적	3.37
교류와 인정	커뮤니티 참여자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내 번역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것이 좋아서	사회적/외적	3.34

타 동기 연구와 비교 분석

비교 연구		본연구
저자 및 연구 내용	결과	결과
Olohan(2014)-TED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TED 번역자 11명의 자기 소개 내용 분석	나눔, 이타정신, 소속감, 재미 순: 재미가 가장 후순위(공적 블로그에 게시한 동기 이므로 '자기 제시' 요인 작용 가능성)	나눔, 재미, 학습, 경력, 교류와 인정 순 재미가 두 번째 순위
Fuente(2015)-global TED translators 대상 설문조사	가치, 공유 순. 본 연구와 부합	본 연구와 부합
Nov(2007)- 위키피디아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재미, 이념, 이타정신 순	본 연구는 재미보다는 나눔이 더 큰 동기로 나타남

타 동기 연구와 비교 분석

비교 연구		본연구
저자 및 연구 내용	결과	결과
Mc.Donough(2012)-위키 피디아 번역자 대상 설문 조사	전문 번역자가 명성, 고객 확보에 관심이 더 많음	전문번역자와 비번역자간 유의미한 차이 발견되지 않음
최항섭(2010)-국내 지식 검색 서비스 정보 기여 네티즌 3,000명 대상 설문조사	봉사, 인정, 여가 재미 순	봉사(나눔)이 가장 큰 동기라는 점이 공통점
Ghosh(2005)-FOSS 개발자 2,700명 대상 설문조사	사회적/공동체적 동기와 내적 동기. 사회적/공동체적 동기가 가장 강함	본 연구와 유사 (사회적 동기 강함-나눔이 1순위)

타 동기 연구와 비교 분석

비교 연구		본연구
저자 및 연구 내용	결과	결과
Lakhani, Wolf(2005) -FOSS 개발자 684명 대상 설문 조사	개인적 동기와 공동체적 동기 모두 작용	본 연구와 부합
황주영, 최서영(2010) - 지식인 참여자 대상 설문 조사	사회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 모두 작용	본 연구와 부합

연령, 성별, 직업군에 따른 동기 차이

- 연령과 동기: 경력(-373, $p=.000$)과 연령간 부적 상관관계
- 남녀 간 동기 차이: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직업군 간 차이
 - 통번역 전문가(18명) vs. 비전문가(85명): 학습 ($p=.002$)에서 유의한 차이
 - 비전문가가 학습 동기가 강하다.

연구의 의의

- 현재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네티즌 번역 다룸
 - 네티즌 번역 동기를 번역 뿐 아니라 자원봉사, 집합지성 참여 동기와의 연계하여 파악
- 번역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 연구 수행
 - 인구통계
- 향후 네티즌 번역 동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한계

- 최소 샘플 크기 요건을 충족했으나 샘플이 더 컸다면 더욱 안정적인 결과 확보가 가능했을 것임

- 향후 과제

- 검증 작업(확인적 요인 분석)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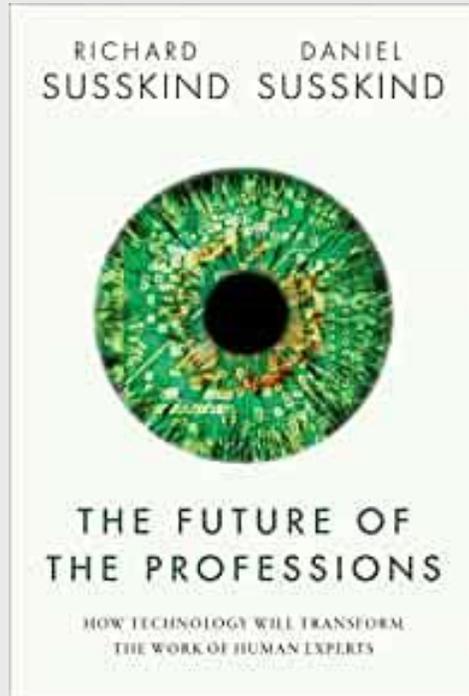
- 최향섭 (2009). 레비의 집단지성: 대중 지성을 넘어 전문가 지성의 가능성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287-321.
- 황주영, 최서영 (2010). 집단지성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 특성 분석: 위키백과와 지식iN에 대한 한미 비교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258-301
- Fuente, Lidia Cámara de la. (2015). "Motivation to Collaborate in TED Open Translation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Web Based Communities*. 11(2): 210-29.
- Ghosh, Rishab A. 2005. "Understanding Free Software Developers: Findings from the FOSS Study", In Feller, J., Fitzgerald B., Hissam, S.A., Lakhani K. R.(eds), *Perspectives on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23-46.
- Lakhani, Karim R.; and Wolf, Robert G. 2005. "Why Hackers Do What They Do: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ffort in Free/Open Source Software Projects". In J. Feller, B. Fitzgerald, S. Hissam; and K. Lakhani (eds.), *Perspectives in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2-27. Retrieved from <http://ocw.mit.edu/courses/sloan-school-of-management/15-352-managing-innovation-emerging-trends-spring-2005/readings/lakhaniwolf.pdf>.
- McDonough, Dolmaya J. 2012. "Analysing the Crowdsourcing Model and Its Impact on Public Perceptions of Translation". *The Translator*, 18(2): 167-191.
- Nov, Oded. 2007. What Motivates Wikipedians? *Communication of the ACM*, 50(11): 60-64
- Olohan, M.(2014). Why do you translate? Motivation to volunteer and TED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7(1), 17-33.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역사 교육: 테크네인문학적 접근 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임세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해체



“전문직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매우 익숙한 미래다. 지금의 방식이 효율성만 높아진 채 유지된다. 이 경우, 전문가는 19세기 중반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계속 일할 것이다. 다만 반복되는 행동은 고도로 표준화·체계화되고, 낡은 작업방식은 정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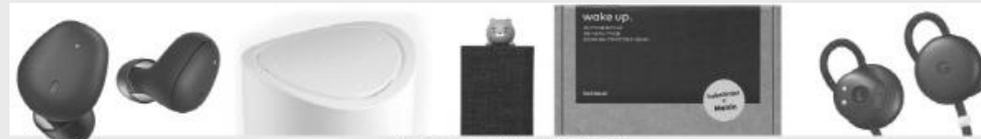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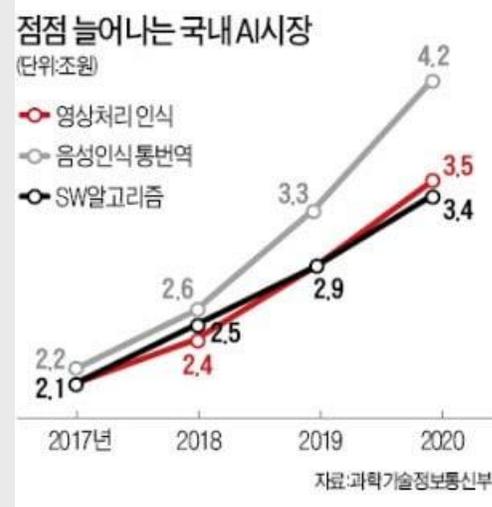
두 번째 미래는 매우 다른 얘기다. 변혁이 일어나 전문가가 지니는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다.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그 성능이 점점 개선돼 전문가의 기존 업무는 대부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미래가 동시에 실현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미래에 가까워져 전문성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사회에서 공유되며, 전문직은 끊임없이 해체될 것이다.”

(서스킨드와서스킨드(Susskind & Susskind), 2016)

통번역의 미래

(1) AI 통번역 서비스 전쟁



국내외 주요 통번역 서비스 현황

업체	구글	네이버	카카오	한글과컴퓨터	시스트란
번역기	구글(Google) 번역	파파고	카카오아이(i) 번역	말랑말랑 지니톡	PNMT(엔진)
서비스 형태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카메라, 이어폰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스피커, 이어폰 (출시 예정)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출시 예정, 인공지능 스피커적용 예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SW)	솔루션 공급 (인공지능 스피커 등)
출시 시기	2007년	2016년 8월	2017년 9월	2016년 7월	2014년 5월 (CSL 인수)
지원 언어	103개	14개	4개 (일본어·중국어 추가 예정)	8개	97개

자료: 각사

(2) 직업 전망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미래보고서(2015)>

2030년까지 신기술 개발에 따라 소멸하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통번역 전문가 제시

VS

<한국직업전망(2017)>

통역사와 번역가의 향후 직군별 고용 추세는
'증가', '다소 증가', '유지', '다소 감소', '감소' 중
'유지'군에 포함

(전현주, 2017)



통번역시장의 불확실성 팽배(손지봉, 2019)

(3) 통번역 직군의 변화

- 테크니컬 라이터(Technical writer)
- 마케팅 카피라이터(Marketing copywriter)
 - 프로젝트 매니저(PM)
 - 언어전문가(Language specialist)
- 문서 엔지니어(Document engineer)
- 리소스 매니저(Resource manager)
 - QA 전문가(QA specialist)
- 프리랜서 번역사/감수자(Freelance translator, reviewer)

(전현주, 2017)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통역 환경의 변화



연구문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비 통역사를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국내 통번역대학원 통역 교육 현황

	입문	심화	실습	틀	기타
	순차/동시통역, 문장구역	전문순차/동시	프랙티컴, 모의회의 등	CAT 등	
A	○	○	○	△	진로세미나
B	○	○	○	△	통번역교수법
C	○	○	○	X	IT학, 인공지능학 등
D	○	○	○	○	국제관계학, 회계학 등
E	○	○	○	X	
F	○	X	○	X	설교통역
G	○	○	○	△	
H	○	○	○	△	

- 대부분의 통번역 석사과정은 통역 입문 과목과 심화 과목,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감을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실습수업 위주로 구성
-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선택과목으로 CAT 틀, 포스트에디팅 등의 수업 제공(통역 준비과정에서 용어DB 관리를 돕는 등 유용하게 사용 가능)
- A학교: 진로개발세미나 과목을 통해 정규과목으로 진로 교육 실시
- C학교: IT학 개론, 인공지능학 개론, 금융공학의 기초, 국제정치/경제 등 전공과목 이외에 교양과목 개설
- D통번역과정: 국제관계학, 경제학, 회계학 등 국제학 관련 수업 필수과목으로 제공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문학적 상상력의 중요성

- 시대의 흐름을 읽고 답 제시
- 복잡한 현실세계에 통찰력 제시
- 보여지는 것 이면의 숨겨진 뜻과 상관관계 발견
 - 비판적 사고 제시



“생각하는 힘”

인문학

넓은 의미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이지성, 2016)

좁은 의미

“언어에 대한/언어를 통한 탐구”

(김재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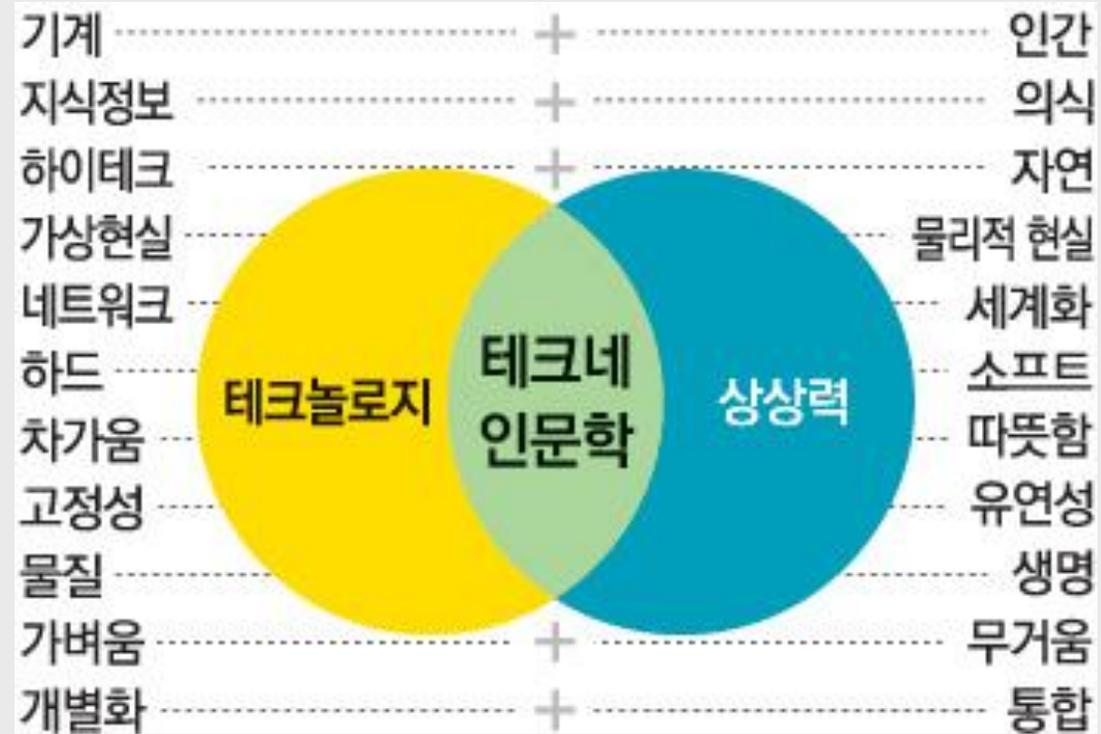
테크네인문학

- 인문학적 상상력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는 실천적 인문학(김연희, 2012)
- 인문학적 가치를 토대로 기술 포용 & 융합 추구



- 통역 스킬, 즉 기능성만으로는 인간 통역사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테크네인문학이 통역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테크네인문학의 특징



통역 교육에서의 테크네인문학 활용 방안

(1) 인문학적 상상력*

인간 통역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업과 고유의 가치에 집중

- ⇒ 의사소통 능력(언어적+비언어적)
- ⇒ 생각하는 힘(e.g. 말의 패턴을 이해하며 숨은 의미 보기, 상황에 대한 맥락적 판단)
- ⇒ 집단지성과 협업
- ⇒ 문제해결능력
- ⇒ 윤리적 사고(e.g. political correctness, 윤리적 편견)

*인간의 바람직한 인성을 토대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생각의 힘'(김경철,오아름과박혜정,2019:2)

(2) 융합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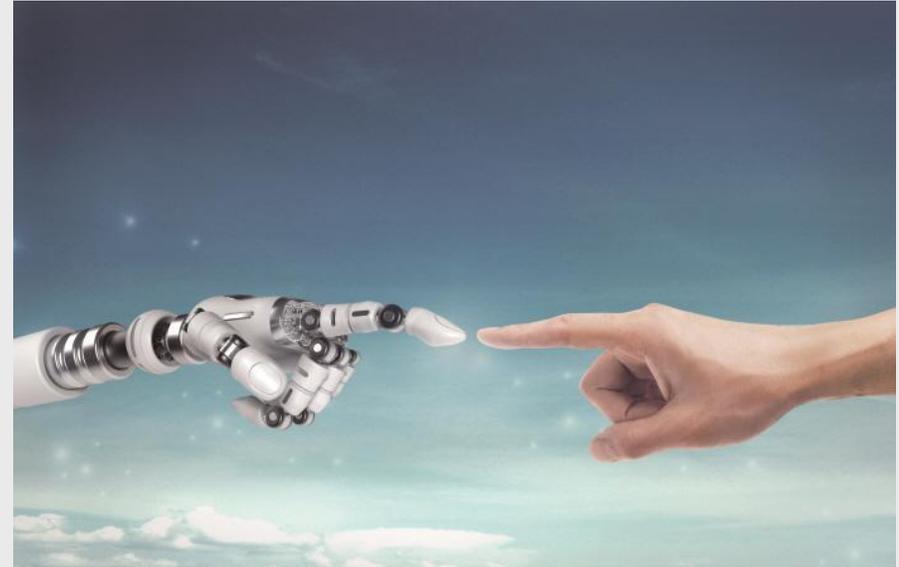
융합의 각 주체 학문들이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문제 해결

⇒ 전문성 강화(언어지식, 통역 스킬, 주제지식)

⇒ 기술 리터러시 강화를 통해 융합 역량 확보

통번역대학원의 역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의사소통법
- 통역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연계/복수전공제도 활성화
- 조기 진로지도
- 기술 교육
- 윤리 교육
- 졸업생 보수/재보수 교육
- 워크숍



참고문헌

김경철, 오아름, & 박혜정. (2019). '인문학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현황을 통해 본 유아교육 분야의 시사점.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3), 41-50.

김연희. (2012).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테크네인문학.' Retrieved from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8%B0%EC%88%A0%EA%B3%BC-%EC%9D%B8%EB%AC%B8%ED%95%99%EC%9D%98-%EC%9C%B5%ED%95%A9-%ED%85%8C%ED%81%AC%EB%84%A4%EC%9D%B8%EB%AC%B8%ED%95%99/>

손지봉. (2019). 국내 통번역교육 교육내용의 현황과 의미. *번역학연구*, 20(4), 115-140.

이다운. (2018). 포스트휴먼 시대의 텔레비전드라마:< 너도 인간이니?> 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48), 261-290.

이지성 (2016). 내 아이를 위한 인문학 교육법. 한영문화사.

전현주. (2017). 4 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번역산업 현황 및 통번역 교육의 미래. *통번역교육연구*, 15(3), 235-261.

Susskind, R. E., & Susskind, D. (2015).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How technology will transform the work of human expert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인터넷 자료>

김기남 (2019). 인문학적 상상력 필요한 AI 시대.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2240081>

김재인 (2019). 윤리가 부족해 한국 인문학 수준이 낮다' Retrieved from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3>

박은혜 (2020). 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학은 위기인가 . Retrieved from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8>

감사합니다.



문화번역에 대한 인공지능(AI)과 인간
의 등가성 구현에 대한 재고:
성경의 동사 시제를 중심으로

우송대학교
김동미

1.서론

- 1950년대 부터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과정 시작하여 2017년 인간과 인공지능(NMT)의 번역대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NMT의 특징으로는 인공지능의 번역이 인간의 결과물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미흡한 부분이 많기에 결국 인간의 손을 거쳐야 완성도 높은 목표 텍스트가 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 이에 수반된 번역 분야의 연구로 포스트에디팅 번역 방법이 도안 되었다.

- 이러한 연구(포스트에디팅)의 특성으로는 인공지능의 번역 엔진 성능이 인간보다 다소 세밀하지 못하며 특히, 문화적 배경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속담이나 연어 또는 관용어 번역에는 인간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돌려 말할 수 있다
- 본 발표 논문은 그동안 인공지능의 번역 역량이 인간보다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보완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경향이 대세지만 다른 각도에서, 인공지능 번역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한 문법적인 인공지능의 번역결과물을 기초로, 문화번역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성경 번역에 대해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 성경 번역은 문학번역의 범주로 볼 수도 있으며, 다른 문학 장르 번역과 비교해 보면 문화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은유와 비유를 많이 담고 있다. 성경 번역에 대한 인공지능의 번역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문학번역의 인공지능 번역에 대한 가능성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이론적 배경(인공지능 번역)

- 신경망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번역결과물이 형편없어 인간과 비교하여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나왔다. 특히 문학번역에서는 김동미(2018)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인간과 인공지능이 각각 번역한 작품을 비교한 것으로 원문이 가지고 있는 다의성을 인공지능이 번역해 내지 못한다는 연구를 하였다.
-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되었는지에 따라 번역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물들이 나왔다.

2.이론적 배경(성경 번역)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검색하면, 총 18편에 해당하는 성경 번역 논문이 있다. 기독교 처음 전파되었을 당시에 번역된 성경의 문체 연구로 7편, 현대 영한 성경 번역 문체연구는 총 11편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11편 가운데 성경 본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히브리어나 그 밖의 언어 문체 연구는 7편이 관련된다.
- 따라서 성경 번역 문체와 어휘 및 문장 구조 등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본 논문의 전체적인 문체의 패턴이 어떤지를 살펴보는데 일조할 것이다.

- 첫째, 유경민(2017)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장 구조 및 어휘 연구'
- 둘째, 유경민(2014) '국한혼용문 성경과 현대 한국어 문체의 상관성' 으로 현대 한국어 문체와 관련하여 국한혼용문 성경이 지니는 국어사적 의의를 밝힌 것이다.
- 셋째, 김동미(2018) '성경 번역의 '수용성'연구': 어린이와 어른 성경 문체 비교를 중심으로
- 넷째, 전무용(2009) '한국어 성경의 평서법 문장 종결형 고찰' 한국어 성경의 종결형 "—다", "—라"의 문체 특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번역 문체의 특성을 기술
- 다섯째, 장성길(2016)의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로 동사의 시제 및 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양태의 개념 및 특성을 다루었다.

3. 분석 방법

- 분석 대상

- 성경의 66(신약 27권, 구약 39권)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된 동사의 종류는 총 33개가 이에 해당하며, 양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을 동사의 횟수를 관찰하면, 모두 91회의 동사가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영어의 시제는 통상적으로 9가지 또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12가지 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마태복음 동사에 해당하는 장, 절

was, were

1,(1,2), 2(1,2), 3(1,5) 4(1,6), 5(1,12)
6(1,16), 7(1,17), 8(1,19), 9(2, 4), 10(2,9),
11(2, 16), 12(2, 16), 13(3,4),14(4,1),
15(4,13), 16(4,19), 17(4,24), 18(4,2)

came

1(1,18), 2(2,2), 3(3,1), 4(3,13), 5(4,3),
6(4,11)

had

1(1,19), 2(3,4)

appeared

1(2,19)

took

1(1,22), 2(2,14), 3(1,24), 4(2,21), 5(4,5),
6(4,8)

said

1(1,20), 2(2,7), 3(2,20), 4(3,7), 5(3, 17),
6(4,3), 7(4,6), 8(4, 9), 9(4, 10)

gave	1(1,25)
Woke up	1(1,24)
Asked	1(2,2), 2(2,11), 3(3,7)4(3,16), 5(4,21)
saw	1(2,2), 2(2,11), 3(3,7), 4(3, 16), 5(4,21)
heard	1(2,3), 2(4,12)

rose	1(2,2), 2(2,9)
called	1(2,7), 2(2,15), 3(2,23), 4(4,18), 5(4,22)
Found out	1(2,7)
sent	1(2,8)
opened	1(2,11)
returned	1(2,12)
left	1(2,14), 2(4,11), 3(4,22), 4(4,20)

Got up	1(2,14)
presented	1(2,11)
worshiped	1(2,11)
went	1(2,9), 2(2,23), 3(3,5), 4(3,16), 5(4,13)
died	1(2,19)
warned	1(3, 7)
answered	1(4,7), 2(4,4)

consented	1 (3,15)
lived	1 (4,13)
began	1 (4,17)
replied	1 (3,15)
followed	1 (4,22)
Bowed down	1 (2,11)
tried	1 (3,14)
attended	1 (4,11)

- 다음의 <표 2>는 인공지능이 번역한 결과물에 해당하는 총 33종류의 동사를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가운데 살펴본 것이다. 비교적 출현이 많은 동사로는 Be동사로서, "was", "were" 를 과거로 번역한 부분은 총 17개 가운데 10개이며 현재 시제로 번역한 부분은 7개로 집계된다.
- "was", "were"가 성경의 목표 텍스트에 나타난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눅았고", "눅고", "—았다", "—였다" 등으로 번역

- 어느 부분에서는 과거시제 동사에 대해 시제 일치시켜서 과거시제로 번역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시제를 일치시키지 않고 현재 시제로 번역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 이러한 인공지능(NMT)을 사용하여 번역한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 가운데, 흥미로운 번역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표 2>의 번역 양상과 같이 어느 부분에서는 과거시제 동사를 과거로, 어느 부분에서는 현재시제로 번역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기계인공지능의 번역 논리에 따르면, 모든 동사가 과거시제로 번역 해야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것은, 한 문장 안에 과거 시제 동사가 연이어 출현한 경우, 처음 등장한 동사는 현재시제로 처리되고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는 과거시제 동사로 처리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이선영(2019)이 영어는 시제 일치해야 하는 언어에 속하고, 한국어는 시제 일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동사에 속하기

- 때문이라는 견해로도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인공지능이 동사의 시제 번역에 있어서, 일정한 번역 원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네이버의 파파고 번역 엔진은 한국어 언어원리에 맞게 문법적으로 규칙적인 번역결과물을 양산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탁진영 외 2019)

인공지능의 번역 결과물에 대한 동사 시제 구분

Was, were

① (Past) , ② (Pres), ③ (Pres), ④ (Past) , ⑤ (Past)
⑥ (Past) , ⑦ (Past) , ⑧ (Past) , ⑨ (Pres), ⑩ (Pres) ⑪ (Past) , ⑫ (Pres), ⑬ (Past) ⑭ (Pres), ⑮ (Pres), ⑯ (Past) ⑰ (Pres), ⑱ (Past)

came

① (Past) , ② (Past) , ③ (Past) ④ (Past) , ⑤ (Past) ⑥ (Pres)

had

1 (past), 2 (past)

appeared

1 (Past)

took

① (Past) , ② (Past) , ③ (Past) , ④ (Past) , ⑤ (Past) , ⑥ (Pres)

said	① (Past) , ③ (Past) , ③ (Past) , ④ (Past) ⑤ (Past) , ⑥ (Past) ⑦ (Past) ⑧ (Past)
Gave	(past)
Woke up	(Past)
Asked	(Past), (past)
saw	① (Pres), ② (Past) , ③ (Past) ④, (Past) ⑤ (Past)
heard	① (Pres), ② (Past)

rose	(Past), (pres)
called	① (Pres) ② (Past) ③ (Pres), ④ (Past) , ⑤ (Past)
Found out	(Past)
sent	(Pres)
opened	(Pres)
returned	(Past)
left	① (Past) , ② (Past) , ③ (Past) , ④ (Past)

Got up	(Past)
presented	(Past)
worshipped	(Past)
went	① (Past) , ② (Past) , ③ (Past) ④ (Past) ⑤ (Past)
died	(Pres)
warned	(Past)
answered	(Past), (past)
consented	(Past)

lived	(Past)
-------	--------

began	(Past)
-------	--------

replied	(Past)
---------	--------

followed	(Past)
----------	--------

Bowed down	(Past)
------------	--------

Tried	(Past)
-------	--------

attended	(Past)
----------	--------

인간의 번역결과물에 대한 동사 시제 구분

Was, were

①(Pres), ②(Pres), ③(Pres), ④(Pres), ⑤(Pres) ⑥(Pres), ⑦(Pres), ⑧(Pres), ⑨(Pres), ⑩(Pres) ⑪(Pres), ⑫(Pres), ⑬(Past) ⑭(Pres), ⑮(Pres), ⑯(Pres) ⑰(Pres), ⑱(Pres)

came

①(Pres), ②(Pres) , ③(Pres) ④(Pres), ⑤(Pres) ⑥(Pres)

had

(Pres), (Pres)

appeared

(Pres)

took

①(Pres), ②(Pres), ③(Past) ④(Pres), ⑤(Pres), ⑥(Pres)

said ①(Pres), ②(Pres), ③(Pres), ④(Pres), ⑤(Pres) ⑥(Pres), ⑦(Pres) ⑧(Pres) ⑨(Pres)

Gave (Pres)

Woke up (Pres)

Asked ①(Pres), ②(Pres), ③(Pres), ④(Pres), ⑤(Pres)

saw ①(Pres), ②(Pres), ③(Pres), ④(Pres), ⑤(Pres)

heard ①(Pres), ②(Pres)

rose	①(Pres), ②(Pres)
called	①(Pres), ②(Past)②(Pres), ③(Pres), ④(Pres)
Found out	(Pres)
sent	(Pres)
opened	(Pres)
returned	(Pres)
left	①(Pres), ②(Pres), ③(Pres), ④(Pres)
Got up	(Pres)

presented	(Pres)
worshiped	(Pres)
went	① (Pres), ② (Pres), ③ (Pres), ④ (Pres) ⑤ (Pres)
died	(Pres)

warned	(Pres)
answered	(Pres), (Pres)
consented	(Pres)
lived	(Pres)
began	(Pres)
replied	(Pres)
followed	(Pres)
Bowed down	(Pres)
tried	(Pres)
attended	(Pres)

- 위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시제인 91회의 동사 중, 오로지 3회만이 과거시제로 번역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현재 시제로 번역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위의 예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된 경우의 3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예문으로 “were”가 있는데, “--(만들어) 졌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에 해당하는 인간이 번역한 과거시제의 예문으로 “took”가 있다. 이것은 “데려 왔으나”로 번역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 인간이 과거시제로 번역한 셋째 예문으로는 “called”가 있는데, 이는 “불렀다”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분석결과

- 첫째, 인공지능이 과거시제 동사를 원문과 동일한 과거시제로 번역한 경우, 그리고 현재시제로 번역한 사례는 전체 동사 가운데 얼마나 등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이 과거시제 동사를 등가에 맞게 과거로 번역한 사례와 현재로 번역한 경우를 인공지능이 번역결과물과 그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첫째 유형부터 비교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이 원문의 과거시제를 목표 텍스트에도 과거시제로 번역한 경우를 살펴보면, 91회 가운데 71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시제로 번역된 사례는 총 20회 출현한 것으로, 전체의 35% 이상이 과거시제로 번역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 한편,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결과물로는 현재시제로 번역된 목표 텍스트의 번역 양상을 관찰하면 한 문장 안에 연속적으로 동사가 출현하여 번역된 경우의 첫 번째 동사는 현재시제로 번역되고 두 번째 동사는 과거시제로 번역 된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이선영(2019)에 의하면 한국어의 언어 특징으로 시제 일치를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할 수도 있다

- 둘째 유형에 속하는 비교 내용을 분석하면, 인간이 번역한 결과물에서 과거시제로 번역한 경우는 총 3회 등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재시제로 번역하였다. 이 3회에 걸쳐서 과거시제로 등장한 동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직접 화법에서 사용한 것으로서 예수께서 제자들이나 사탄에게 하는 대화 부분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 첫째, 문화적 배경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성경 번역에서 특히, 영어 원문 의 과거 동사 시제를 기준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았을 때, 인공지능과 인간이 다소 다르게 번역을 하였다는 점이다. 즉, 인공지능은 원문 텍스트의 시제가 과거이면 번역 텍스트도 과거로 표기를 한다는 점이다
- 하지만, 인공지능(파파고) 엔진 내에서도 번역 언어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한 문장 안에 연이어 동사가 두 번 나오면, 첫 번째 동사는 현재시제로 번역을 하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동사는 과거시제로 번역해 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엔진의 번역 언어 원리는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구도 일치하는 현상들이기도 하다

- 둘째, 영·한 성경(NIV)을 번역할 때, 인간이 번역한 결과물에서는 대부분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성경이 문화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언어적인 측면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에 대한 인식 과 활용이 다르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선영(2019)의 연구에서 처럼 한국어의 시제 구분은 영어의 시제 구분과 다르게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현재 시제가 과거시제나 과거 완료 과 거진행을 대신할 때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어느 정도 문맥이 일치한다.

- 따라서, 성경 번역이라는 문화 배경이 농후한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문법적으로 맞게 번역하여 등가적으로 시제를 옮겨 되었어도 인간이 비문법적이기도 하고 독자층의 문화를 배려하기 위하여 원문과 상이한 시제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0 KSCI 가을 학술대회

비전문가 통역사례의 통역교육적 함의에
대한 고찰:
샤론최(Sharon Choi) 통역 사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동대학교
신혜인 (2020.10.24)



차례

- I. 서론(연구 의의)
- II. 설문조사 개요
- III. 설문조사 결과
- IV. 교육적 함의
- V. 결론

I. 서론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소감 외 각종 시상식, 토크쇼, 영화 시사회,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봉준호 감독의 통역을 감당한 샤론 최(Sharon Choi, 한국명 최성재)의 통역이 화제가 됨.
- 코로나사태의 여파로 인해 유례없는 비대면 통역 수업 실시하게 됨.

II. 설문조사 개요



샤론 최 (1993년생)

-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고를 졸업
- 美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영화 전공,
현재 장편 영화 각본을 쓰며 영화 연출을
준비 중
- 2020년 제12회 영산외교인상

설문조사 개요

- 2020학년도 3월~9월까지 국내 통역번역대학원 3곳에서 총 5회 기초통역 관련 과목(순차통역, 문장구역 등) 수강생 총 5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 2020년 3월: 대학원 2곳, 3과목(15명, 12명, 8명), 총 35명
 - 2020년 7월: 대학원 1곳(여름특강), 총 7명
 - 2020년 9월: 대학원 1곳, 1과목, 총 11명
- * 응답자 중 37명(70%)은 2020학년도 입학한 신입생.
-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과제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에서 공개되어 있는 샤론 최의 통역관련 동영상을 자유롭게 검색하며 살펴보고 시청소감을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함.

샤론 최 통역에 대한 설문조사 질문내용



1. 샤론 최 통역을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서 몇 점인가?
2. 샤론 최 통역의 잘한 점(인상적인 점)은 무엇인가?
3. 샤론 최 통역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4. 샤론 최 통역을 통해 볼 수 있는 통역사의 주요 능력은 무엇인가?
5. 그 외 코멘트 (통역에 대한 의문점, 질문 등)

III. 설문조사 결과



봉준호 감독의 전담 통역
샤론 최의 사례연구
종합결과(학생)

Q1. 샤론 최 통역은 10점 만점에 몇 점?

9.6

Q2. 샤론 최 통역의 잘한 점...

내용이해력: 화자 의도의 정확한 파악; 메시지 핵심을 뽑는 정확한 이해력 및

통역속도 및 순발력: 빠른 반응속도, 신속한 전달력

센스: 애매한 질문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히 대처

정확성: 누락과 오역 없는 통역

전달력: 논리정연하고 쉬운 의미 설명, 이해 도모하는 문장력 (탈언어화)

영화에 대한 탄탄한 배경지식

봉감독과의 좋은 호흡. 케미. 공감능력, 일치감

전달력: 유창하고 간결하고 매끄러운 전달력

차분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 원어민 같은 발음.

언어능력: 풍부한 영어 표현력으로 뉘앙스, 한국식 농담을 자연스럽게 통역

뛰어난 기억력, 집중력, 암기력

자신감. 여유 있는 자세. 자연스러운 표정. 당당한 시선처리

Q3. 샤론 최 통역의 아쉬운 점...

- 찾기 어렵다... 약간의 문법 실수
- 가끔 시선을 노트에 두고 통역한 점. 제스처들도 덜 사용한 점.
- 한 분야에 최적화된 통역사일 수 있다는 점
- 상대적으로 영한 통역은 약한 듯.
- 통역사임에도 존재감이 너무 부각되고 연사보다 주목을 더 받은 듯.

Q4. 통역사 주요 능력(feat. 샤론 최)...

- 언어 이해력(분석력)
- 언어 표현력: 복잡한 내용을 쉽고 매끄럽게 전달
- 배경지식 및 어휘
- 언어 전환 순발력 및 위기 대처능력
- 자신감 있는 태도
- 기억력, 집중력, 암기력
- 듣기 좋은 목소리, 차분한 발성, 정확한 발음
-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이질감 없는 통역
- 청중과의 교감능력
- 체력 등

Q5. 그외 코멘트 (의문점, 질문 등)

- 매우 다채롭고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었음.
- 주요 내용을 대분류하면 아래와 같음.
 - 통역 방법에 대한 문의
 - 통역상황에 대한 문의
 - 노트테이킹에 대한 문의
 - 통역 실력 향상 방법에 대한 문의
 - 기타 개인적인 질문

IV. 교육적 함의 및 결론

1. 샤론 최 통역사례 활용의 장점
2. 샤론 최 통역사례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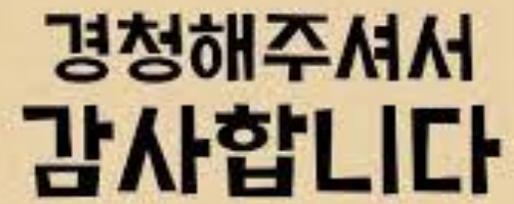
V. 결론

- 샤론 최의 통역영상을 통역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순차통역에서 노트테이킹의 원리,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선행지식의 중요성 등을 스스로 깨닫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동시에 전문 통역훈련 받는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서 통역하는 샤론 최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또 있어야 하는지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전문통역사들의 차별점과 경쟁우위를 이번 기회에 부각하여 더욱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한다면 그 자체로도 교육적 함의가 클 것임.

thank
you

The text 'thank you' is written in a black, cursive, handwritten font. The word 'thank' is on the top line and 'you' is on the bottom line. The text is surrounded by several colorful hearts in shades of orange, blue, pink, green, purple, and red, scattered around the letters.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text is written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on a plain, light brown background. The text is arranged in two lines: '경청해주셔서' on the top line and '감사합니다' on the bottom line.

Working memory and language to note
in consecutive interpreting
– second experiment –

Pyeongtaek University
Gyunghee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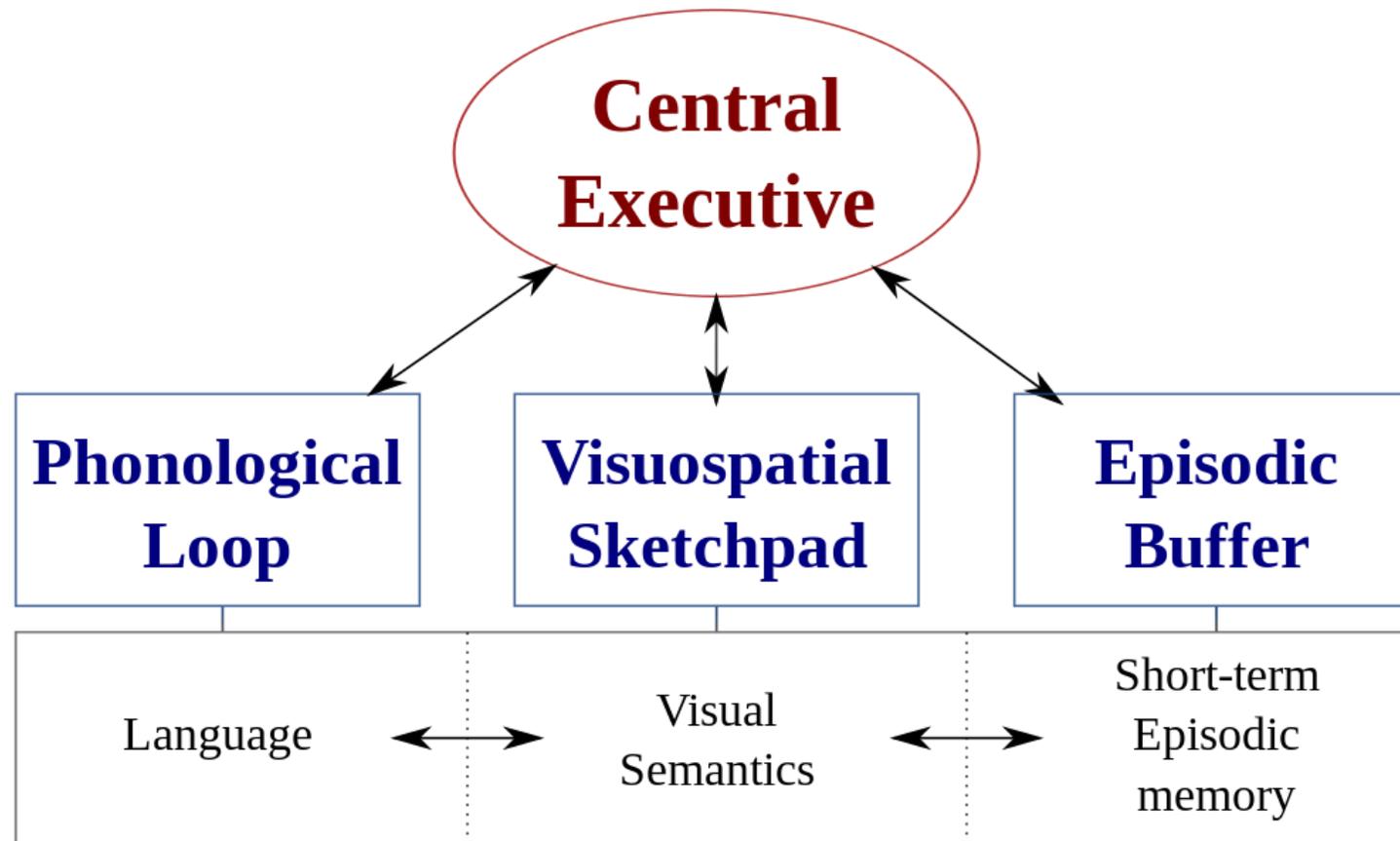
Background

- Note-taking in the way of listening for beginning students
- Any way to reduce cognitive load while taking notes?
- The instructor's influence of language to note
- The outcome of the first experiment

What is working memory

- Working memory supports human cognitive processing by providing interface between perception, short-term memory, long-term memory, a goal-directed actions. [...] enables us to learn and to string together thoughts and ideas (Wiley 2008: 3)
- A system for the temporary holding and manipulation of information during the performance of a range of cognitive tasks such as comprehension, learning and reasoning (Baddeley 1986: 34).

Baddeley and Hitch's Model (1974)



Gile's Effort Model (2009: 175-6)

- *Phase one: listening and note-taking*

Interpreting=L+N+M+C

L Listening and Analysis

N note-taking

M Short-term Memory operations

C Coordination

- *Phase two: target-speech production*

Interpreting=Rem+Read+P+C

Rem Remembering

Read Note-reading

P Production

Note-taking and language to note

Different variables of which language to note from Lee 2017

- Source language vs. target language (Herbert 1952, Rozan 1956, Ilg 1988, Gile 1995, Alexieva 1993, Lee 2017 for SL; Mikkelsen 1983, Seleskovitch and Lederer 1989, Jones 1998 for TL; Seleskovitch 1975, Kirchhoff 1979, Andres 2002 for a mixture of both languages with symbols and words in a third language)
- A and B language distinction (Dam 2004 for A language for both directions)
- Characteristics of languages involved (Szabo 2006, English-Spanish)
- Levels of expertise (Gonzalez 2012)

The SL and TL debate

SL vs. TL: the oldest and most dominant debate on language choice in note-taking

Szabo 2006

- Reasons for advocating TL: facilitates production, can genuinely process the incoming information while listening
- Reasons for advocating SL: can minimize effort and save capacity while listening, and perform the linguistic conversion in the production phase, can avoid the pitfalls of committing to a certain meaning before having the opportunity to look at the speech as a whole (c.f. Dam 2004a: 4)
- One of the most recent empirical study for SL: Lee (2017) argues for advantages of taking notes in the source language across different levels of expertise. She uses as subjects Year 1 students, Year 2 students and professional interpreters, with the third group showing the strongest preference for the SL in rendering from SL (English) to TL (Korean).
- Gonzalez (2012) argues that the participants use more TL when they had more expertise.

Hypothesis

- Taking notes in Source Language would reduce cognitive burden on the interpreter/trainee, which would lead to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accuracy of the content of the text

Summary of the first experiment

- Students tend to prefer to note in target language
- Reasons for choosing TL include less time taken to note and being comfortable with their mother tongue, but possibly influenced by the instructor/academics
- Possible correlation between SL to note and shortened L-unit (SL) (c.f. English spelling)

From the 'Further experiment in the first study'

- Design in need of change for the next experiment in such a way that there is no influence from the instructor
 - provide merits and demerits of different variables
 - let the students to choose

=> Applied to the second experiment

Second experiment

Data and Method

- 19 students
- Group1: 8 students in their 2nd semester or above; Group 2: 8 first semester students
- Memory test comprising 6-7 questions about the content of the texts
- Note-taking and interpreting
- An English text and a Korean text, on employment (460 words) and the environment (553 characters) each
- Analysis method:
 - 1) Dam (2004), Lee (2017)
 - language based units (complete vs. shortened)
 - non-language based units
 - 2) 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 error analysis: Ideational meaning-based constituents

Language used for note-taking and reasons for the choice

- Group 1
 - Both English and Korean texts
8 students: Korean
- Group 2
 - English text
5 students: English
3 students: Korean
 - Korean text
7 students: Korean
1 student: English
- Either their A language or SL
- Reasons for taking notes in Korean: comfortable, quick, easier to write, mother tongue, can interpret without converting
- Reasons for taking notes in English: faster, easier, hard to listen and convert at the same time, better able to understand and remember

Language used for note-taking

- Table 1 language used for note-taking

Gr	1								2							
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K	K	K	K	K	K	K	K	K	K	E	K	E	E	K	E	E
KE	K	K	K	K	K	K	K	K	K	K	K	K	K	K	E	K

- All G1 students took notes in Korean for both texts.
- Most G2 students wrote in English for the English text.
- Nearly all participants wrote in Korean for the Korean text.

=>

- G1 students took notes in their A language for both texts.
- A majority of G2 students used SL for the English text, and nearly all of them used TL/A language for the Korean text.

Memory test

Table 2 memory test

Gr	1									2								
St	1	2	3	4	5	6	7	8	Average	9	10	11	12	13	14	15	16	Average
EK(7)	7	5	5	4	7	5	6	5	5.5	5	6	6	4	4	3	4	4	4.5
KE(6)	6	6	6	4	6	6	4	5	5.4	6	6	6	6	5	5	6	5	5.6

- In memory test, G1 (5.5) did better than G2 (5.1)
- In particular, G1 is 1 point higher than G2 for the English text.

L-unit and shortened L-unit

Table 3: L-unit and shortened L-unit

Gr		1									2								
St		1	2	3	4	5	6	7	8	Average	9	10	11	12	13	14	15	16	Average
EK	No of units	109	118	96	67	135	88	73	124	101	107	130	122	119	160	64	30	143	109.4
	No of L- units (%)	54	66	50	35	93	34	45	71	56 (55.4%)	81	108	57	75	116	35	14	116	75.3 (68.8%)
	Distribution of L-unit (SL v TL)	10 vs 44	20 v 46	1 v 49	10 v 25	20 v 71 (c 2)	14 v 20	16 v 29	14 v 57	11.9 v 42.4	9 v 72	104 v 4	21 v 36	48 v 27	165 v 10	2 v 33	13 v 1	84 v 32	55.8 v 26.9
	Distribution of shortened L-units (SL v TL)	9 v 1	6 v 0	1 v 6	6 v 2	5 v 1	10 v 2	4 v 2	9 v 15	6.3 v 3.6	4 v 0	18 v 0	3 v 2	21 v 4	4 v 0	2 v 9	12 v 1	7 v 0	8.9 v 2
KE	No of units	115	156	113	133	143	133	133	137	132.9	123	110	132	186	134	111	43	135	121.8
	No of L- units (%)	84	128	87	107	106	99	108	102	102.6 (77.2%)	105	93	102	150	109	103	28	117	109.9 (90.2%)
	Distribution of L-unit (SL v TL)	77 v 7	121 v 6 (c 1)	83 v 3 (c 1)	107 v 0	106 v 0	94 v 5	99 v 9	93 v 3	97.5 v 3.9	91 v 14	87 v 6	95 v 7	137 v 13	105 v 4	102 v 1	8 v 20	115 v 2	92.5 v 8.4
	Distribution of shortened L-units (SL v TL)	2 v 4	1 v 2	0 v 0	4 v 0	0 v 0	1 v 1	0 v 0	5 v 5	1.6 v 1.5	0 v 3	1 v 0	1 v 2	11 v 1	0 v 0	0 v 0	1 v 12	2 v 0	2 v 2.3

- G2 has more L-units than G1 does for both texts (E: 75.3 v 56; K: 109.9 v 102.6)
- Both groups have more SL than TL in shortened L-units

Meaning error

- Table

Gr	1									2								
St	1	2	3	4	5	6	7	8	Average	9	10	11	12	13	14	15	16	Average
EK (196*)	42.5	63.5	35	X	67	77	116	73	67.7	79	64.5	63	64.5	24	73.5	87.5	75	66.4
KE (92*)	9.5	21.5	24.5	28	20	24	42.5	16.5	23.3	12	13	22.5	13	10	11	X	27.5	15.6

* number of constituents: counted using experiential meaning from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 While G2 (15.6) has less meaning error for the Korean text than G1 (23.3), for the English text the two groups have similar number of meaning error (G1: 66.4; G2: 67.7)

Conclusion (tentative)

- The students took notes either in A language or SL
- G1 wrote in A language and G2 wrote in SL
- G2 scored lower in memory and used more L-units than G1, it has less meaning error than G1
- In distribution of shortened L-units, both groups have more SL than TL

References

- Alexieva, B. (1993). On teaching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In C. Dollerup & A. Lod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Insights, Aims, Vision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Andres, D. (2002). *Konsequitvdolmetschen und Notation*. Frankfurt: Lang.
- Baddeley, A. and G, Hitches. (1974). Working memory.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8: 47-89.
- Dam, H. V. (2004). Interpreters' notes. On the choice of language. *Interpreting*, 6(1), 3-17.
- Gile, D.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Revised Edi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onzalez, M. A. (2012). The language of consecutive interpreters' notes: Differences across levels of expertise. *Interpreting*, 14(1), 55-72.
- Halliday, M. and Matthiessen, C.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Linguistics*. (3rd ed.). London/New York: Arnold.
- Herbert, J. (1952). *Manuel de l'interpréte: Comment on devient interpréte de conférences*. Geneva: Georg.
- Ilg, G. (1988). La prise de notes interprétation consécutive. Une orientation générale. *Parallèles* 9, 9–13.
- Kirchhoff, H. (1979). Die Notationssprache als Hilfsmittel des Konferenzdolmetschers im Konsequentivvorgang. In W. Mair & E. Sallager (Eds.), *Sprachtheorie und Sprachpraxis*. Tübingen: Gunter Narr, 122–133.
- Lee, J. (2017). Language Choice in Note-Taking – The Case of Korean and English – <<통역과 번역>>, 19(3), 65-84.
- Mikkelsen, H. (1983). Consecutive interpreting. *The Reflector*, 6, 5-9.
- Jones, R. (1998).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Rozan, J-F. (1956). *La prise de notes en interprétation consécutive*. Geneva: Georg
- Seleskovitch, D. (1975). *Langage, langues et mémoire: Étude de prise de notes en interprétation consécutive*. Paris: Minard.
- Seleskovitch, D. & Lederer, M. (1989). *Pédagogie raisonnée de l'interprétation*. Paris: Didier Erudition.
- Szabó, C. (2006). Language choice in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A topic revisited. *Interpreting*, 8(2), 129-147.
- Wiley, M. (2008). *Working memory and academic learn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 Hoboken, New Jersey: Wiley.

영화 <기생충> 자막의 문화소 번역 연구

박건영·남희지·임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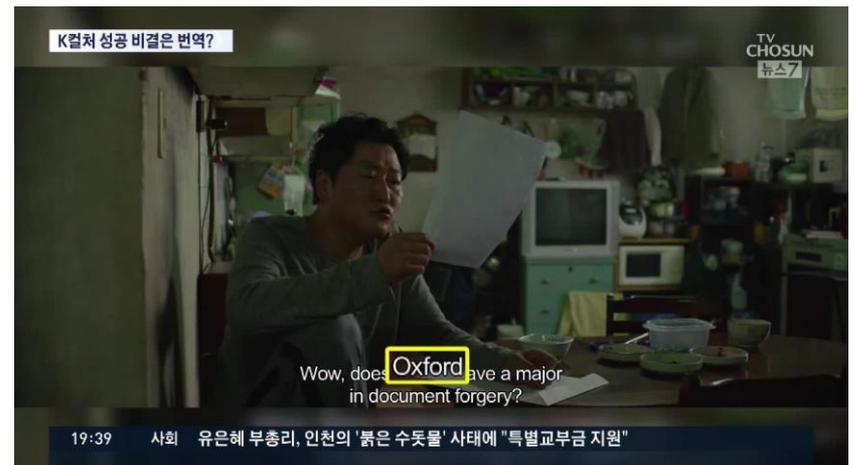
연구 목적 및 배경

- <기생충>은 국내외 영화제에서 총 176개 상을 수상 (아카데미 4개 포함 해외 155개, 국내 21개)해 한국 영화로서 최다 수상 기록
- 2019년 북미에서 개봉한 역대 외국어 영화 중 최고 매출 기록
- 제시카 징글(Jessica Jingle)의 인기 등 문화적 현상, 봉준호의 장르화



연구 목적 및 배경

- <기생충>의 세계적 인기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와 영어 자막에 기인
-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적 요소를 해외 관객이 이질감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번역했다는 평가
- <기생충> 속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이론적 배경: 문화소

- 프랑코 아이헬라(Franco Aixelá, 1996): 원문을 도착어로 번역하였으나 해당 개념이 목표 문화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원문과 특정 목표 문화 사이에 문화소라는 개념이 탄생
- 네데가르드-라센(Nedergaard-Larsen, 1993): 지리, 역사, 사회, 문화의 네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
- 뉴마크(Newmark, 1988): 자연, 물질문화나 인공물, 사회 문화, 기관과 관습 및 절차·개념, 몸짓과 습관으로 분류
- 조재범(2014): 한국 영화의 영어 자막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고유명사군, 문화 특수어군, 사회적 특수어군, 관용어군의 4가지로 분류

=> 출발어 문화의 고유한 요소라는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류 측면에서는 물질적 항목과 정신적 관습 및 개념을 포괄

이론적 배경: 문화소 번역 전략

- 페데르센(Pedersen, 2005): TV 드라마 자막의 ECR, 언어외적 문화지시체로 정의한 문화소 번역 전략을 13개의 세분화된 전략으로 분류
- 프랑코 아이헬라(1996): 번역 전략을 크게 보존(conservation)과 대체(substitution)로 분류
- 데이비스(Davies, 2003): 소설 해리 포터 시리즈 속 영국적 문화소 번역 전략
 - 미시적 차원: 다양한 전략으로 번역
 - 거시적 차원: 각 요소가 전체 텍스트의 구성에 기여하며 전반적인 효과
- 몰리나 외(Molina, et al., 2002): 번역 방법(method), 전략(strategy), 기법(technique)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
- 조재범(2014): 프랑코 아이헬라(1996)를 참고해 한국 영화 7편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크게 보존, 대체, 생략으로 나누고, 페데르센(2011)의 번역 전략을 참고한 혼용 전략 모델을 제안

연구방법

1. 한글 대사와 영어자막 전사 후 문화소 추출

2. 연구자간 논의를 통해 문화소 범주 확정

: 신조어, 비속어, 속담, 관용적 표현의 경우 목표 문화권에도 상응하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제외

3. 선행 연구의 문화소 분류를 참고, 변형하여 고유명사, 자연물, 생활문화 관련어휘, 사회문화 관련어휘, 역사 관련어휘의 5개 범주로 분류

4. 범주별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 미시적 전략: 프랑코 아이헬라(1996)의 ‘보존’과 ‘대체’ 번역전략을 전체적인 틀로 하되 하위범주는 해당 텍스트 문화소에 맞게 설정

- 거시적 전략: 데이비스(2003)와 몰리나 외(2002)의 연구에 착안해 번역가와 감독의 협업 과정에서 나타난 번역 전략을 거시적 전략으로 규정하고 번역가와 감독의 인터뷰 기사와 영상, 번역가가 연사로 참여한 심포지엄 학회 자료 등 수집 검토

문화소 범주 분류

상위 범주	세부 요소
고유명사	인명
	상표명
	기관명
자연물	생물
	무생물
생활문화 관련어휘	음식
	주거환경
사회문화 관련어휘	직업
	제도
	정치
역사 관련어휘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문화소 번역 전략 분류

상위 범주	세부 전략
보존	음차
	직역
대체	일반화(상위개념)
	구체화(설명)
	대체
	축소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거시적 전략

- 번역가 달시 파켓은 <기생충>은 난도가 높은 문화소가 많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다른 영화보다 많이 걸렸다고 밝힘
- 또한 봉 감독이 영어자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자막 내용에 대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해서 감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화소에 대한 번역 전략을 결정했다고 말함
- 봉 감독 역시 어려운 문화소를 어떻게 번역할지 번역가와 함께 고민했다고 밝히고, 한국적 표현이라고 해서 번역에 특별히 제한성을 두지 않고 핵심 맥락을 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의외로 외국 관객들이 이를 잘 수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함
- <기생충>의 영어자막=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구축해 온 봉 감독과 번역가 파켓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
- 즉, 해외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막을 원했던 감독과 '일반화', '보편화'라는 특성이 강한 자막을 만들어 낸 번역가의 소통이 곧 거시적 차원의 번역 전략이며 미시적 전략을 포괄하는 큰 틀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미시적 전략

ST	TT	Strategy	Category
이야, <u>서울대학교</u>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Wow, does <u>Oxford</u> have a major in document forgery?	대체	고유명사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미시적 전략

ST	TT	Strategy	Category
망할 <u>곱등이들</u> .	Damn <u>stink bugs</u> .	대체	자연물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미시적 전략

ST	TT	Strategy	Category
저기 아줌마, <u>짜파구리</u> 할 줄 아시죠?	Listen, do you know how to make <u>ram-don</u> ?	대체	생활문화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미시적 전략

ST	TT	Strategy	Category
역시 <u>종북 개그</u> 의 지존. 사랑해 여보!	No one can <u>imitate North</u> <u>Korean news anchors</u> like you!	구체화	사회문화

분석 결과

- 영어 자막 속 문화소가 미시적 차원에서 음차, 직역부터 대체, 축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번역
- 번역 전략의 다양성은 거시적 차원의 자국화 전략, 즉 일반화와 보편화를 통해 해외 관객의 이해를 돕고자 한 감독과 번역가의 협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관련 인터뷰 및 기사 등을 통해 확인
- 한국만의 문화적 정서와 내포된 의미를 번역으로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사례도 발견
(ex: 대만 카스텔라, 기사식당)
- 전반적인 자국화 전략을 통해 해외 관객의 이해를 용이하게 했으나, 원천어 문화의 이국적 요소를 목표어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논의 및 향후 연구과제

- 한영 자막 번역에 대해 감독과 번역가가 협업한 사례
- 거시적 전략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개별적 미시적 전략 요소가 존재하지만 큰 거시적 맥락에서 고찰할 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번역 전략으로서 의미를 지님
- 해외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자국화 전략이 몇몇 문화소의 경우 내포된 한국 고유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함
- 사극 중심의 기존 한영 자막 연구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안

참고문헌

- 김수연. (2018). 『사극 영화 문화소의 한영 자막 번역 전략 : <관상>, <역린>, <명량> 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연주. (2016). 『권력과 서법체계 - 한국 영상 영화 자막 번역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이근희. (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相關語)의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4(2), 5-27.
- 장만호. (2004). 「번역과 언어의 경제: 영화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6(2), 97-125.
- 조재범. (2009). 「영화 “왕의 남자” 자막번역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전략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7(2), 215-235.
- 조재범. (2014). 『한영 자막 번역과 문화소 번역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파켓, 달시. (2019. 09. 21). *글로벌 문화소통과 통번역*. 2019 한국통역번역학회 한국외대 언어문화소통연구소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자료, 서울, 대한민국.
- Aixelá, J. F.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8, 52-78.
- Božović, P. (2019). How should culture be rendered in subtitling and dubbing? A reception study on preferences and attitudes of end-users. *Babel*, (1), 81-95.
- Davies, E. E. (2003). A goblin or a dirty nose? The treatment of culture-specific references in translations of the Harry Potter books. *The Translator*, 9(1), 65-100.
- Díaz-Cintas, J., & Remael, A. (2014).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Routledge.
- Molina, L., & Hurtado Albir, A. (2002). Translation techniques revisited: A dynamic and functionalist approach. *Meta: Journal des Traducteurs/Meta: Translators' Journal*, 47(4), 498-512.
- Nedergaard-Larsen, B. (1993). Culture-bound problems in subtitling. *Perspectives*, 1(2), 207-240.
-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Vol. 66). New York: Prentice Hall.
- Pedersen, J. (2005, May). How is culture rendered in subtitles. In *MuTra 2005—Challenges of Multidimensional Translation: Conference Proceedings* (pp. 1-18).
- Ramière, N. (2006). Reaching a foreign audience: Cultural transfers in audiovisual translation.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6, 152-166.
- <인터넷 자료>
- 김정. (2019. 10. 11.). ‘영화광이 만든, 세계 보편적 영화’. Retrieved December 15, 2019, from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676214
- 나원정. (2019. 6. 1.). ‘“기생충” 짜파구리·종북개그... 칸영화제서 땀 뻘 뀌진 비결’. Retrieved November 26, 2019, from 중앙일보 <https://news Joins.com/article/23485510>
- 뉴스시. (2020. 2. 10). ‘[기생충 4관왕] <기생충>에 작품상... 아카데미, 변화를 택했다’.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0_0000914085&cID=10101&pID=10100
- 서정민. (2020. 1. 6.). ‘한국 최초 골든글로브 <기생충> ‘이제 아카데미다’’. Retrieved January 7, 2020, from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23295.html
- 서경리. (2019. 7.). ‘“영화 속 캐릭터에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게 나의 일”’. Retrieved December 15, 2019, from Topclass Chosun <http://topclass.chosun.com/board/view.asp?catecode=Q&tnu=201907100012>
- 신규진. (2019. 5. 30.). ‘“기생충” 7번이나 본 이 남자 칸 관객들에 한국말 ‘맛’ 전했다’. Retrieved November 26, 2019, from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20427>
- 신진야. (2019. 11. 4.). ‘영화 ‘기생충’ 북미서 호평 속 놀라운 흥행성적 ‘주목’’. Retrieved December 8, 2019, from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040836365335>
- 양혜연. (2019. 8. 26.). ‘다른 언어에 담아내는 번역가 달시 파켓’. Retrieved December 15, 2019, from 더네이버 <https://www.imaginekorea.com/neighbor/view.asp?no=6643>
- JTBC 뉴스. (2019. 6. 15.). ‘“기생충” 80만 돌파... ‘디테일 번역’에 해외서도 관심’ [비디오파일]. Retrieved December 6, 2019,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DM7oKh9h3KY>
- KBS 더 라이브. (2019. 6. 4.). 오늘밤 김제동. 기생충 ‘짜파구리’ 뭐라고 번역했길래? 번역가 달시파켓 매력에 풍덩~ [비디오파일]. Retrieved December 2, 2019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uJd8SHrKWag>
- Zack Sharf. (2019. 5. 25.). ‘Cannes Jury Says Awarding Bong Joon-ho’s ‘Parasite’ the Palme d’Or Was Unanimous Decision’. Retrieved December 8, 2019, from Indiewire <https://www.indiewire.com/2019/05/cannes-jury-parasite-palme-dor-unanimous-decision-1202144858/>